

유명 제과점 20대 직원의 과로사

- 구조적 과로사에 내몰리는 청년노동자

장향미 회원

지난 2025년 7월 16일 유명 베이커리 회사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6세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회사 동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한 언론매체에서 고인의 사망이 과로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¹⁾ 런베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해당 언론의 집중보도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런베뮤는 단순히 베이글을 파는 베이커리가 아니었다. 2021년 창업 후 문화 예술을 접목한 브랜드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30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다. 매장 앞은 늘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를 바탕으로 런베뮤는 창업 3년 만인 2024년 연 매출 796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브랜드의 성공으로 큰 부를 거머쥔 창업자의 성공 이야기가 여러 방송을 통해 소개됐는데, 그녀의 독특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인기를 끌었다. 브랜드 인기는 더 치솟았다. 그래서 20대 직원의 과로사 이후 화려한 브랜드 명성 뒤에 가려졌던 처참한 노동 실태와 법 위반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초장시간 노동 실태

고 정효원 씨는 사망 당시 입사 14개월 차 직원으로 사망 7일 전 신규 매장의 오픈 준비로 평소 노동시간 대비 37%가 더 늘어난 주 80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위반, 1년 미만 단위로 쪼개기 근로계약 맺기, 연

1) 매일노동뉴스, 2025.10.27, [단독-런베뮤 과로사 의혹] '주 80시간 초장근로' 스물여섯 청년 숨지다


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²⁾

기사 보도 직후 런베뮤는 과로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즉시 런베뮤 운영사 LBM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런베뮤 대표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억 100만 원이 부과됐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근로감독 결과³⁾가 나왔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당일 런베뮤는 사과문 발표와 함께 대표이사의 사임을 밝혔다.

한편 런베뮤는 고인의 사망 시점인 2025년 7월 약 2천억 원에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됐다. 고인의 과로사는 런베뮤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인력 효율화를 하면서 야기된 구조적 과로사였다는 추측도 있었다.⁴⁾

수백억 매출 뒤에 청년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

런베뮤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20~30대 청년 노동자⁵⁾다. 운영사 LBM은 주 52시간 넘는 노동시간,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며 청년 노동자들을 값싸게 고용해, 열악한 근로조건, 극한의 노동강도에서 일하게 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뽑아낸 결과가 런베뮤의 수백억 매출이다. 엄청난 매출액 뒤에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 넘쳤고 결국 한 노동자의 목숨까지 집어삼켰다.

하지만 런베뮤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전 과로사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던 것들이다. 과로사를 초래하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노동 환경과 이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 급성장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는 오랜 기간 많은 전문가와 과로사 유가족들이 제기해온 문제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이제는 바뀌야 한다. 

2) 매일노동뉴스, 2025.10.27, [런베뮤 과로사 의혹] '허점투성이' 근로계약 "런베뮤 근로감독해야"

3) 매일노동뉴스, 2026.02.13,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노동자 숨진 인천점 '주 70시간 이상 근무 확인'

4) 블로터, 2025.10.30,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JKL'언아웃의 닷'... 실적 압박이 부른 비극)

5) 오마이뉴스, 2025.11.06, 런베뮤, 매출 뛰며 산재도 급증... 20대 청년노동자가 76%